

# 여야 합의에도...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난항

### 민주 10년 vs 한국당 8년 ...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입장차 규제프리존법 병합 심사 충돌 불가피 ... 30일 처리 불투명

여야 3당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여야 입장차가 커서 분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안 세부 내용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견해차가 큰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도 "세부적 내용에서는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

할 필요가 있어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주석을 달았다.

최대 쟁점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한다.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

세제 혜택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한국당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한다.

규제개혁 관련 법안은 비슷한 3개의 법안을 묶어 처리하기로 했지만,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이 3개의 법안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규제샌드

박스법 중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사업을 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기본 체계로 하고,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병합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경호 의원은 "민주당이 규제샌드박스법에 무고실 책임을 넣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규제프리존법의 많은 특례 조항 가운데 많은 부분을 민주당이 규제샌드박스법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법안 명칭을 놓고도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도 원칙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과 달리 야당 시절부터 의료의 공공성을 들어 서비스발전법을 반대해왔다. 다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보건의료 쪽은 공공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서비스발전법 중 관련 내용은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개별법 차원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맡겨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점 법안을 각 소관 상임위로 보내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나 원내대표 차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형 일자리' 해법 찾는다

### 靑, 22일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일자리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청와대에 서 17개 시·도지사와 상경례를 겸한 간담회를 한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7기 광역단체장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각 지역의 실업률과 취업률을 보고하고 문제점 등을 진단하는 한편, 각 시·도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 시와 현대자동차가 상생·협업모델로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 추진 현황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로 당선된 시·도지사들로부터 자치분

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현안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취업인구 감소가 최대 현안인 만큼 '광주형 일자리'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마련될 것인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의 광주지역 진출 확대 등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성사되면 직접 현장을 찾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이 같은 지역상생 모델의 확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임동욱 기자 tuim@

# 이개호 장관·김영록 지사가 가뭄 점검

### 나주호·무안·함평 등 방문 대응책 마련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지역 가뭄·폭염피해 현장을 방문,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취임 5일만인 지난 17일 농업용수 부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나주 나주호와 무안 옥수수밭을 찾았다.

이 장관은 이날 나주호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용수 공급대책 현황을 보고 받고 "나주호 저수율이 22%까지 떨어졌지만, 하류지역 보조 저수지 121곳과 간이 양수장 38곳을 잘 활용하면 농업용수 부족을 충분히 매울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달 13일 현재 전국 저수지 1만7000여 곳의 평균 저수율은 55.3%로 평년 78%보다 낮지만, 농농사를 위한 농업용

수 공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마 이후 비가 적게 내려 일부지역에서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휴일인 19일 함평 벼 고사 피해 지역과 단감 햇볕탈(일소) 피해 지역을 방문,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벼 16ha, 고수 181ha, 채소·특작 59ha, 밭작물 77ha 등 총 334ha 규모의 가뭄피해가 발생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폭염·가뭄 대책비로 14억4000만원을 지원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이 수해를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일자리 지혜 모읍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 바른미래 당권 '짜짓기'에 달렸다

### 1인 2표제에 두번째 표 경쟁 손학규·정운천·김영환·하태경 후보 6인 전략적 연대 모색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명의 당권주자 간 '짜짓기'가 승부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대는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대 본선 진출자 6명 중 권은희 후보

가 여성 몫 최고위원 자리를 이미 확보한 만큼 나머지 남성 후보 5명이 지도부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위 안에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정표'라 할 수 있는 첫 번째 표에 덧붙여 두 번째 표를 얼마나 끌어모으느냐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두 번째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후보와의 전략적 연대, 즉 '짜짓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19일 현재까지 '러닝메이트'를 공식 선언한 후보들은 없지만 손학규 후보와 정운

천 후보, 김영환 후보와 하태경 후보, 이준석 후보와 권은희 후보가 암묵적인 한 조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손 후보는 한때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신용현 의원과 공식 석상에 나란히 자리하며 러닝메이트 체제를 이뤘지만, 본선 막이 오른 후에는 '나 홀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자칫 '안심'(安心·안철수 전 의원의 의중) 논란과 편 가르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을 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

출신인 손 후보가 바른정당 출신 정운천 후보와 전략적 연대를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 후보가 바른정당 출신이지만 안철수 전 의원 측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태경-김영환 후보는 지난 12일 전대 후보 중 두 사람만 참여한 한 토론회에서 첫 번째 표를 자신에게, 나머지 한 표를 김 후보 또는 하 후보에게 찍어달라고 말해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일단 연대설을 부인했지만, 성사된다면 역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의 짜짓기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김병준號 오늘 혁신 로드맵 공개

### 한국당 연찬회...정책·대안정당 소위 내달 본격 활동

자유한국당 김병준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한 달을 넘기면서 혁신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낼 조짐이다. 그동안 김 비대위 위원장은 비대위 구성과 당직 인선 등 일할 체계를 갖추며 '하늬문기' 22%를 보냈지만 이제는 혁신의 그림을 보여야 할 때가 됐다.

19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당은 20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에서 비대위 산하 4개 소위 및 여성·청년 특위가 마련한 혁신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비대위 산하 ▲가치·좌표 재정립 소위 ▲정책·대안 정당 소위 ▲정당개혁 소위 ▲시스템·정치개혁 소위

등 4개 소위는 혁신 과제를 추려내는 작업을 해 왔다.

가치·좌표 재정립 소위는 인권·노동·평화와 같은 큰 담론에 당의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한 뒤 9월 말까지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대안 정당 소위는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17개 상임위 별로 '절대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법안' 2개씩 총 34개를 추리고, 그 대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2개씩 총 34개를 마련한 뒤 정기국회에서 여당과 입법 대결을 펼친다는 생각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 법률 경매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주)대신경매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유용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신단 공영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3천	① 서구 병천동 현대빌라 (40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① 광산구 월천동 (공장) 토1989평 건2,400평 ▶ 감평가 6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8평 건272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7억2천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채 (20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4억2천	② 광산구 오성동 (공장) 토506평 건528평 ▶ 감평가 12억 → 최저가 9억8천
③ 서구 차평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빌라 (25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2천	③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8억4천
④ 북구 용봉동 (2층상 6층)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④ 첨단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억9천 → 최저 3억9천	④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⑤ 북구 영안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⑤ 광산구 운남동 남양이파크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 1억2천	⑤ 남구 백운동 (빌라) 토66평 건145평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할 (경매 직권,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